

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대축일 (9월 20일)

화답송

김금자 수녀 작곡



눈 물 로 씨 뿌 리 던 사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라



1. 주님 - 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 실 -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 였 - 네
2. 그 때 - 민족들이 말하 였 - 네 "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 셧 구 - 나"
3. 주님 - 저희의 귀양 살 - 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 돌 리 소 서
4. 뿌 릴 - 씨 들고 울며 가던 사 람 - 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 아 오 리 라



1. 그 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 치 - 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 네
2.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 셧 기 - 에 우리는 기뻐하 였 네
3. 눈물로 씨뿌리던 사 람 - 들 환호하며 거두 리 라
4. _____